

정 답 표(1교시)

시험 종류 : 제17회 한국어능력시험(고급 B형)

영역 : 어휘·문법, 쓰기

문항번호	정 답	배 점
1	③	3
2	①	3
3	②	3
4	④	3
5	①	3
6	③	3
7	④	4
8	②	4
9	④	3
10	①	3
11	④	3
12	①	3
13	②	4
14	④	4
15	③	4
16	②	4
17	③	3
18	④	3
19	②	3
20	①	3
21	②	3
22	④	4
23	①	3
24	④	4
25	③	3
26	①	3
27	③	4
28	②	4
29	③	3
30	②	3
31	③	4
32	①	4
33	②	4
34	①	4
35	④	4
36	③	4
37	③	4
38	②	4
39	②	4
40	④	4

문항번호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주관식)	배점
41	<p style="text-align: center;">발상의 전환이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을 의심해 봄으로써 고정관념을 깨는 것을 말한다.</p> <p>1) ‘~았/었던’과 같은 과거와의 단절, ‘~(으)므로써’와 같은 도구나 과정의 의미를 쓰지 못하면 -2점</p> <p>2) 전체적인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4점</p> <p>3)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1~-4점</p> <p>4) 40~60자보다 적거나 많은 때는 -2점</p> <p>5) 한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1점</p>	7
42	<p style="text-align: center;">역사 기록을 대할 때에는 기록자의 가치관에 따라 사실이 왜곡되었을 수 있으므로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p> <p>1) ‘~에 따라’과 같은 기준, ‘~(으)리 수 있으므로’와 같은 가능성의 의미를 쓰지 못하면 -2점</p> <p>2) 전체적인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4점</p> <p>3)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1~-4점</p> <p>4) 40~60자보다 적거나 많은 때는 -2점</p> <p>5) 한 문장으로 쓰지 않으면 -1점</p>	8
43	<p style="text-align: center;">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p> <p>1) ‘-느냐에 따라’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2점</p> <p>2) ‘~에 따라’ 대신 ‘~에 의해’ 등을 쓰고 뒤의 말과 호응된다면 감점 없음.</p> <p>3) ‘~에 따라’ 대신 ‘~에 의해’ 등을 쓰고 뒤의 말과 호응되지 않으면 -2점</p> <p>4) ‘어휘’, ‘표현’ 등의 사용이 원인이 된다는 의미면 감점 없음.</p> <p>5)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4점</p>	8
44	<p style="text-align: center;">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p> <p>1) ‘숨어 있다/ 들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으면 -2점</p> <p>2) ‘~는 데에만’을 사용하지 않으면 -2점</p> <p>3) ‘파악하다’, ‘이해하다’, ‘해석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2점</p> <p>4) 의도한 의미를 명확히 쓰지 못하면 -4점</p>	7
45	<p style="text-align: center;">작문형 문항의 채점 기준에 따름.</p> <p>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대중 매체에 의해 제공되므로 현대 사회에서 대중 매체가 담당하는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문은 대체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불필요한 정보가 넘쳐 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p>	30

현대 사회에서 신문은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의 매체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최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인 인터넷에 제시된 정보들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 신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신문은 무분별하게 정보가 산재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문은 재미를 추구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방송 매체와는 차별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에게 문제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대중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것이 신문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이다.

신문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비해 딱딱하고 무거운 매체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진지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즉 신뢰감을 주는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매체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